

□ 해외 출장 보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다녀와서

이 윤 하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과 한국어문진흥회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자치주 연변 지역의 한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규범 교육’을 위하여 필자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병근 교수와 함께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 간에 걸쳐 현지에 다녀왔다.

현지에 체류하면서 우리는 그곳 한글 교사들에게 주로 우리의 표준적인 한국어 규범에 관한 내용과 우리말 예절 등을 가르치는 한편, 틈틈이 현지의 한국어문 정책 기관인 판공실 및 한국어 사용을 법적으로 감독하는 사업 위원회 등의 인사, 연변대학의 한국어 교수, 연변방송국 및 한국어문 연구 기관인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등의 인사들과 접하면서 현지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한국어 연구 동향 및 국어 사전의 편찬 현황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현지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경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현지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연구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추진, 계획하는 해외 동포 대상의 한국어 연수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자는 데 있다.

현지 한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내용은 주로 한글 맞춤법의 역사, 남북한 언어 규범의 차이, 표준어 해설, 표준 발음법 및 우리말의 예절 등이었다. 짧은 교육 기간이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인상은 우리의 교과 내용이 그들에게는 꽤 이질적이어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연수에 참가한 대부분의 한글 교사들은 함경도 출신의 2~3세이다. 이 점에서 그들의 언어는 짙은 함경도 방언에 기초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한어(漢語)와 북한어 규범이 영향을 끼침으로써 일종의 혼합적인 언어 모습을 띠는 듯하였다. 따라서 한국

어를 순화, 통일한다는 차원에서나 사라져 가는 함경도 방언을 채집한다는 차원에서 현지의 한국어 실태를 조사, 연구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하겠다.

연수 교육에서뿐 아니라 한국어 관련 학자나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두음 법칙'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저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그것을 왜 남한에서는 발음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하여 어두의 'ㄹ'을 발음하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효과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음 법칙'을 인정함으로써 겪게 되는 폐단으로 성씨(姓氏)의 '임(任)'과 '임(林)'을 절대로 구별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외국어를 배우는 때에는 얼마든지 어두의 'ㄹ'을 발음할 수 있으며 한글만으로는 성씨의 '임(任)'과 '임(林)'을 절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지나친 억측이 가로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론은 하나의 언어가 가지는 역사적 특성은 존중,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한글만으로는 거의 구별이 가능하지 않은 성씨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다. 한 예가 바로 성씨의 '정(鄭)'과 '정(丁),' 그리고 '정(程)'은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것들은 모두 한자에 기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심정적으로 '두음 법칙' 문제는 남북한의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앉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하나의 통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해외 동포들이 그것으로 더 이상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말의 예절'과 관련하여 호칭어와 지칭어는 많은 부분 우리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그들이 함경도 출신의 후손이어서 습관적으로 함경도 방언에 근거한 어휘를 자연스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그들이 북한식의 호칭어나 지칭어를 얼마간 사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주어진 삶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살면서 漢語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호칭어나 지칭어가 우리와 다르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가령, 신혼의 '신랑(新郎)'을 지칭하는 어휘로 '서방재'를 사용한다거나, 부부간을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어휘로 '애인(愛人)'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하다. 심지어는 이러한 경우에 '동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 말을 우리의 '여보'나 '당신'에 대당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표준어 사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의 언어는 물론 해외 동포 언어까지를 망라하여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화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어의 통일과 동질성 회복은 가능할 것이다.

표준 발음법에 관한 한 문제는 심각하다. 둘 받침을 가지는 용언의 경우에 형태, 음운적 환경에 따라 어느 자음이 실현되고 어느 자음이 묵음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고사하고, 그들의 발음이 워낙 강한 함경도 사투리의 억양에다 중국어의 성조까지 담고 있어서 단시일 내에 우리의 표준 발음법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험하듯이 발음이란 원래 집요하리만큼 토착적인 현상이어서 부단한 노력과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교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의 표준 발음법에 순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즉, 표준 발음법 교육을 위한 영상 교재 및 녹음 테이프의 개발이 그것이다. 그 좋은 실례를 우리는 우리의 한국 방송 공사(KBS)의 협조로 연변 방송국 아나운서의 발음이 거의 우리의 표준적인 발음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현지에 체류하면서 두어 번 그곳 방송을 청취할 기회를 가졌고 그 때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견한 바이기는 하지만, 대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지의 한국어 연구 동향이나 업적은 미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듯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연변에서의 한국어 연구는 주로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여 토론한 바에 따르면, 실적이 거의 미미한 듯하다. 특히, 문법론이나 통사론 분야의 업적은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그나마 명맥을 있는 것이 있다면 북한 규범에 기댄 연변 조선족을 위한 조선어 규범화 연구와 어휘론적 차원에서의 방언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이 같은 표현은 다소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면서 우리말과 글을 지키겠다는 열정과 연구 열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비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필자가 느끼기로는 현지의 상황은 마치 우리 나라의 20세기 전반기의 우리말 연구 활동과 흡사해 보였다.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의 예를 들어 보면, 첫째, 아무리 독특한 창의적인 연구물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500부 정도밖에 발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한국어 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주로 북한의 것에 제한되어 있어서 전혀 학문적인 식견을 넓힐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안고 있는 이 같은 고충이 해소된다면, 우리도 그들에게서 학문을 위한 연구 논문이나 자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관련 연구 업적과 자료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 업적이나 자료의 제공은 그들을 바른 학문에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남북한의 연구 업적이나 동향을 허심탄회하게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연구 가능한 분야에의 어떤 업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어휘론이나 방언학과 관련한 업적이 그것이다. 바꿔 말하면, 필자의 눈에 연변이라는 지역이 아직은 어휘적인 측면이나 방언적인 측면에서 조사 연구되어야 할 것을 많이 안고 있는 곳으로 보인다.

주어진 현실의 특수성으로 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현지의 우리말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두어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우선, 사전 편찬의 대전제로서 중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규범적인 사전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남북한이 통일을 보이는 어휘를 표제어로 등재한 사전이어야 하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중부 방언에 해당하는 어휘를 수록한 사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현재 사회과학원에서 편찬 중인 사전의 경우는 중국에서 새로이 나타난 어휘와 함께 남북한이 통일을 보인 어휘 중 8할 정도의 것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과 북한에서 달리 쓰이고 있는 것은 '과학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둘째, 사전 편찬 과정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문제로 다음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에 관한 한 부분적으로 우리의 고충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중국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철자는 북한의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특히 두음 법칙과 사이시옷의 문제), 규범상에서 북한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은 남한의 사전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특히 신기철, 신용철의 '새우리말 큰사전'), 말다듬기(순화)에 해당하는 어휘는 가능한 한 남북한 공통적인 것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 남북한에 공통으로 있는 방언을 표준어로 인상시키고 있다는 것, 외래어는 한어에서 온 것을 주종으로 삼되, 굳어진 관용구는 주로 남한의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모의 차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그러나 남과 북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뜻풀이는 중국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집필자 개개인에 따라 달리 기술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통일성을 기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 용례는 작품에서 가져와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표기를 고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끝으로 전문어는 원칙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자에게 의뢰하여 주석하게 한다는 것 등등이다.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그들이 겪는 고충은 다름 아닌 우리의 고충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충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 남북한의 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연변이나 기타 해외의 관련 학자들이 자주 한자리에 모여서 바람직한 국어 사전 편찬의 방향을 심도 있게 탐색하여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상이 짧은 답사 기간 동안 연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우리의 경험이다.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 얻은 경험이어서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대과가 없는 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국어를 진정으로 통일시키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우선 남한과 북한의 규범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규범이 통일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해외 동포 언어의 통일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표준적인 한국어 규범을 교육, 보급하는 일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일적이고 체계화된 어문 정책을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외 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를 부단히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